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향긋한 봄나물

미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은 저서 '잡식동물의 딜레마'에서 "인간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이미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가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 하지만 잡식동물은 다르다. 선택 가능한 수많은 먹을거리들 가운데 무엇이 안전한지 가려내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잡식동물인 인간이 처한 딜레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크고 복잡하게 발달한 것도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초식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은 딜레마에 빠졌다. 먹긴 먹어야겠는데 육식만큼 본능을 자극하지도 않을 뿐더러 맛도 없었다. 채소를 좀 더 맛있게 혹은 더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서양에서는 그 방법으로 드레싱(dressing)을 개발했다. 샐러드(salad)의 어원이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sal)이라는 사실에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최초의 드레싱은 소금이었을 것이다. 이후 식초·오일·향신료 등으로 종류가 늘고 조리법도 다양해졌다.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을 택했는데, 그 모든 역사와 지혜가 담긴 단어가 바로 '나물'이다. 아마도 나물은 한국 음식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다. 개화기 때 내한했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먹을 수 있는 나물의 가짓수를 한국 사람만큼 많이 알고 있는 민족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같은 재료라도 볶거나 말리는 등 조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질감과 맛이 달라지는 나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찬사를 보낸다. 서양 요리에도 나물의 요리법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물은 우선 그 가짓수부터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한다. 우리말 속에 그 단서가 숨어 있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풀을 '푸새'라 하고, 무·배추·상추·마늘·고추처럼 사람이 심어서 거둔 것을 '남새'라 하며, 이 모두를 통틀어 '푸성귀'라고 한다. 따라서 푸성귀라면 무엇이든 나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은 450여 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물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먹는 부위가 달랐고, 먹는 부위에 따라 채집 방식 또한 달랐다. 뿌리째 먹는 나물은 캐고, 뿌리를 먹지 않고 잎을 먹는 것은 뜯고, 고사리처럼 줄기를 먹는 것은 꺾었다. 이처럼 언어에까지 그 세심함이 표현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음식이 진정한 가치다.

조리법 역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날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 데치는 것, 볶는 것 등으로 나뉘었는데 어느 방식을 선택하건 재료 본연의 향과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맛을 내는 양념 역시 간장·된장·초고추장·소금 등 최소한의 것들만 사용했으며, 이때도 재료와 양념장의 궁합을 꼼꼼하게 살폈다.

나물을 데쳐 먹는 것은 나물이 가진 향과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음식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데친 나물은 생채소보다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많이 먹게 되는데, 덕분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변비를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기후가 청명하여 계절마다 다양한 나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제철에 나는 나물 외에도 그때그때의 나물들을 여러 방법으로 말려 두었다가 겨울이나 새싹이 돋지 않는 이른 봄에 불려서 썼다. 따라서 나물은 연중 어느 때나 밥상에 올랐다. 밥이 중심인 우리네 밥상에서 밥과 나물은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다.

사철 흔하다지만 봄이야말로 진정한 '나물의 계절'이다.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긴다. 겨우내 움츠렸던 근육이 이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의 소모량이 늘어난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봄나물은 그래서 제격이다.

봄나물의 대표 선수들만 살펴보자. 두릅은 산나물로는 드물게 단백질이 많고, 냉이는 성질이 순해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으며, 돌나물은 칼슘이 우유의 2배에 이르고, 취나물은 비타민A가 많아 혈액 순환을 돕고, 봄동은 항암·항노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30배가 넘으며, 달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양기를 보강해 준다. 한편 봄에 나는 어린 싹이 가진 약한 쓴맛은 열을 내리고, 나른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너무도 힘겨운 한 철을 보냈다. 분노와 자괴감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드느라 몸은 몸대로 지쳤다.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법과 제도의 역할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육신의 피로까지 풀어 주지는 못한다. 우리 선조들은 절식(節食)이라고 해서, 철마다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절을 즐기고 건강을 지켰다. 이 찬란한 봄날 우리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음식은 그래서 나물이다.

〈맛칼럼니스트〉

커피 한 잔

내가 차로 사람을 친 그날 밤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퍽' 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가 언뜻 보이더니 사라졌다. 급정거를 하는 그 짧은 순간 '사람을 치었구나!' 하는 공포가 덮쳐왔다. 동승한 아내는 비명을 질렀다. 차문을 열고 뛰어 나가보니 길바닥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지난 2월 22일 광주엔 비가 왔다. 이미 깜깜해진 오후 7시 20분,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어두운 북구 임동 5거리에서 전남대 쪽으로 SUV 차량을 몰고 가던 내가 행인을 친 것이다.

비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받쳐든 순간 손에 피가 묻어났다. '아, 머리를 다쳐버린 건가. 사망해버렸을까. 이런 빌어먹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반쯤 넋이 나가버린 아내는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행인들이 몰려들고 그중 한 분은 나와 쓰러진 사내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대답을 못하는 아내에게 행인들이 임동 5거리 어디쯤이라고 소리질러 가르쳐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쓰러진 사내의 호흡을 확인해보느라 코에 귀를 갖다 대봤다. 확 끼쳐오는 술냄새,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내 말 들려요? 아저씨, 눈 떠봐요!" 그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던 그 사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아, 죽지는 않았구나, 그러나 머리를 다쳤으니 큰일이다' 사이렌소리와 함께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사고발생 4~5분 만이었다. 대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조립식 들것을 길바닥의 사내 몸통 양옆으로 끼운 뒤 목 받침을 하고 차에 실어 올렸다. 요란한 사이렌 경광등과 함께 구급차는 떠났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나에게 경위를 물었다. 면허증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체크한 뒤 인근 상인들의 입회하에 다시 한번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민간증인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금 제정신을 되찾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 병원으로 직원을 출동시킨다며 안심하라는 위로를 해줬다. 그 또한 고마웠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의사 2명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호치키스(스킨 스테플러)로 봉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만취한 채 집에 가야한다며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었다. 머리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피해자는 촬영 필요 없다며 침대 위에서 발버둥쳤다. 나와 보험사 직원이 어르고 윽박질러 CT와 전신 엑스레이촬영을 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다. 그리고 의사의 한마디, "머리 내부 출혈은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겠네요" "어깨 골절이 보입니다.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제서야 긴장이 좀 풀리며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나는 응급실 침대에서 그와 힘든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인생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58년 개띠. 순천이 고향.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오고 공수부대 입대. 제대 후 지금까지 금형공장 프레스 보조공으로 일해온 노동자. 부모형제가 없는 혈혈단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임동 월세방에 거주. 구청 사회복지과의 보호를 받으며 자활센터에서 일당 2만5천 원을 받는 근로자. 이것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었다.

자정이 임박해 나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걱정스런 말을 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건지 녹색신호 때 횡단한 건지 규명하기 애먹게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녹색신호 때 건넜다고 주장하거든요" 2004년식 고물인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다. 인근도로에 CCTV카메라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난감할 일이다.

이튿날 술에서 깬 피해자는 매우 수줍은 성격의 남자로 변해 있었다. 나는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이 그는 빠르게 회복했고 어깨수술을 잘 받았다. 진단은 7주가 나왔다.

일주일 후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고장면이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찍혀있다는 것이었다. 수사관은 동료경찰과 둘이서 이 영상을 찾기 위해 사고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몇 시간 동안 뒤졌다는 것이다.

아직 피해자 이씨는 병원에 입원중이다. 진정으로 그의 회복을 기도한다.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당일 신속히 출동해준 119 대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내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진주 수사관과 동료분들께도 감사 드린다. 어두운 광주 구도심 밤거리는 좀 더 밝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운전, 전방주시, 정속운전을 다짐해본다.

기 고

문학관 없는 문화중심도시

임 원 식
광주시문인협회장

날씨가 풀리고 봄을 맞는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도 지났지만 우리네 가슴 속은 아직 시린 겨울날을 걷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엊그제 홍매화가 만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곧 겨우내 얼었던 땅도 녹고 만물이 생동하는 찬란한 봄을 느끼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문학인들은 '올곧지만 가난한 선비'로 지칭되어 왔다. 그렇듯이 우리 문학인들은 좋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과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돈 속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문화적 기초인 한국문학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문화수도 광주에 "문화는 있고 문학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니 문학인들과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립한국문학관'과 '빛고을문학관' 건립의 좌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지난해 한국문단과 지자체들을 뜨겁게 달궜던 '국립한국문학관' 공모 사업을 보자. 위기의 한국문학과 문단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도종환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450억 원을 들여 2019년 개관을 목표로 공모에 나섰다.

이에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 등 전국 24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는 과정과 문학관 공모에 따른 절차와 심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검토가 없었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사업 공모는 결국 백지화되었다.

광주 역시 '빛고을문학관' 건립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문인들과 관계자들이 노력했으나 결국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딛고 다시 '빛고을문학관' 건립을 차분하고 착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과거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면서 하나하나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문인협회 700여 회원 등 1000여 명의 문학인들은 바람직한 의견을 모아 대통합을 이룩해 내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문인협회는 문단의 원로와 학계·언론계 그리고 광주광역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광주광역시와 상호 협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올해를 문학 융성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화 융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아지면 문학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주체 세력으로서의 광주 문학이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는가.

社 說

탄핵 기각 소신이라면 당당히 이름 밝혀라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56명에서 4명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 의원은 총 94명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며, 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국론분열'이란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단호하게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탄원서 서명은 친박 핵심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서명 의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탄원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입증하는 무수한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부대이고 국정 농단의 부역자들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의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몽니를 부리고자 한다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 투어를 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 징계 등으로 인적 쇄신을 꾀했으며 당명까지 바꿨다.

하지만 민심에 역행하는 이 탄원은 당시 반성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준다. 왜 한국당을 '도로 친박당' 혹은 '꼴통 보수당'이라고 비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탄핵 기각이 소신이라면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반가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성공 스토리

유례없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주1913 송정역시장(송정역시장)에서 빵을 판매하는 청년 상인이 1년도 되지 않아 가맹점 등 전국에 점포 7곳을 낸 것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차별화된 맛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뤄낸 성과다.

지난해 송정역시장에서 첫선을 보였던 또와식빵은 이제 광주의 쇼핑 1번지라고 불리는 충장로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 출발한 프랜차이즈가 도심 상권에 진출하고 전국에 체인사업을 내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앞서 또와식빵은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 2호점, 대구 반월당역에 3호점을 냈고 기세를 몰아 부산 남포동점, 목포 하당점, 광주 전남대점도 속속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근래 광주 전통시장들은 청년 상인들의 꿈을 키워 주는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송정역시장의 경우 송정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전국 각지에서 청년 상인들의 점포를 찾는가 하면 남구 무등시장의 경우 20대 청년 상인 10여 명이 영업 중이다.

사실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들의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들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데다 당국의 지원 사업이 임대료와 같은 초기 비용에 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의 성공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외형에 급급해 점포수를 늘리기보단 경영 전략 등 자립 방안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無 等 鼓

희망의 증거

아주 오래전 전남대병원 신생아실을 취재한 적이 있다. 잡지 '예향'에 쓸 '신년 르포' 기사를 위해 병원에 20여 시간 머물며 신생아실 풍경을 스케치했었다. 그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은 37주를 넘지 못한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버거운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많은 이를 인터뷰했지만 당시 이틀 연속 만났던 '똘이'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다. 할머니의 딸은 체외수정으로 임신 했지만 생명이 위험해 28주 만에 수술을 해야 했고,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고작 979g이었다. 건강한 아이가 3000~3500g이니 정말 아주 작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우유를 겨우 5cc 정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기뻐하던 할머니는 다른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에게까지 말을 건네며 알은체했다. 유리방에서 꺼내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도 했다.

수간호사에게 들은 정우 할아버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새벽에 아기가 위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 쉬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고는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서인지 정우는 튼튼히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1000g에서 3주 만에 3000g으로 성장해 떠났던 상아가 감기 치료를 위해 신생아실을 찾았을 땐 면회를 기다리던 부모들이 아기 곁을 떠날 줄 몰랐다.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두개골 없이 태어난 아기가 며칠 전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잭슨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인 아이였다. 두개골 대부분이 없고 뇌도 단 30%만 존재하는 선천성 무뇌증. 태어나더라도 바로 사망할 거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부모는 '우리가 누구라고 아이의 생명을 결정하겠느냐'며 아이를 출산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금이 전개됐고, 세계인들이 참여해 잭슨을 응원했다. 잭슨은 기적을 만들어 냈다. 두 살이 된 지금, '엄마' '아빠' '사랑해' 등의 말을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있단다.

그때 신생아실에서 만났던 아기들도 잘 자라고 있겠지. '희망의 상징'이 된 많은 '똘이들'과 '잭슨들'을 응원한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